

『KES 2006』개막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전자·정보산업 가족 여러분!

금년에 전자산업진흥회는 『KES 2006』을 “Innovative Digital Solution!” 이라는 주제 하에 삼성, LG는 물론 Philips, Sharp, Haier, BenQ 등 국내외 많은 Global IT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KINTEX에서 지난해 보다 보다 발전된 모습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전자산업진흥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자전문 전시회인 『KES』의 국제화 대형화를 위해 금년초부터 국내외 주요 IT기업 유치, 다양한 부대 행사 개발, 홍보 강화 등 많은 부문에서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올해로 37회를 맞이하는 『KES 2006』은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18개국 600여 업체가 참가하여, 기술과 제품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고품질 첨단 IT제품을 32,000㎡의 넓은 전시공간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Global 전자전문전시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KES 2006』은 신기술 시연관, IT우수디자인관, 신개발우수전자부품관 등 특별홍보관이 마련되어 다양한 미래의 디지털 기술을 체험하는 전시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신기술 시연관, IT우수디자인관, 신개발우수전자부품관 등 특별 홍보관이 마련되어 다양한 미래의 디지털 기술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아울러 IT전자부품 수출상담회, 글로벌 EMS, 수출상담회, 러시아 IT업계 초청 무역상담회 등 IT전문 비즈니스가 개최 되어 중소기업의 수출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황창규 사장 등 국내외 저명인사의 Keynote Speech, 디지털 융합시대의 기술과 미래를 전망하는 각종 국제세미나, 주요기업의 신제품 발표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전자산업은 단순한 제품을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라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미국의 CES, 독일의 CeBIT 등을 보면 이러한 현상은 자명하며 전자진흥회도 수년 내에 『KES』가 CES나 CeBIT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자진흥회를 지켜 봐주시고 『KES』의 발전과 국제화를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KES 2006』가 참가업체들께는 전자산업의 새로운 기술과 추세를 습득하여 시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참관하시는 모든 업체나 관계자들께서는 많은 아이디어와 정보를 습득하는 기회가 되고, 정부나 관련 기관들은 국가의 미래발전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전시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KES 2006』이 그 어느 해보다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신 많은 국내외 기업체와 관련 기관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6. 10. 17
한국전자산업진흥회장
윤종용